

가축수송차량 소독실시 감독 강화

- 농가에서는 차량소독실시증명서 반드시 확인해야 -

농림부는 지난 98년 고시한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나 2달이 지난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3월 8일 시·도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본회 등에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 운영강화 협조” 공문을 통해 가축수송차량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관내 도축장에 대한 가축수송차량 등의 소독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출작업장 검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도축장의 소독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본회에는 회원을 대상으로 소독시설 설치를 독려하며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설치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할 시·도에 통

보토록 했다.

축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에는 농장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미 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농장내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농가에 계도하도록 하였다. 특히, 닭수송차량의 경우 육안으로 어리장의 세척·소독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세척·소독을 하지 아니한 차량번호와 출하 닭도축장을 농림부 축산위생과 또는 시·도 축산과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위생·방역관리우수종계장인증요령 개정 고시

- 가축전염병 근원적 차단키 위해 ... 인증표시 광고사용 가능 -

농림부는 지난 2월 18일 우수종계장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검역원의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생·방역관리우수종계장인증요령”을 개정 고시하였다.

우수종계장 인증제도는 종계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 및 방역관리가 우수한 종계사육농장에 대해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은 축산경영개선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증표시를 상품표시에 사용할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어 인증을 받을 경우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인증대상 농장은 검사대상 전염병(추백리, 가금티푸스, 만성호흡기병, 전염성 활막염 등 4종)의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추백리를 포함하여 3종이상의 전염병이 1년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특히 추백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

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염병검사신청서를 관할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적을 인증신청서와 함께 관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우수종계장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등급은 검사대상전염병중 3종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2등급은 2종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으로 나눈다.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종계장위생관리요령(농림수산부고시 제 1994-12호)을 이행해야 하며 관할 시험소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농장내 종계에 대한 질병예찰, 종계의 분양, 이동 및 도태, 예방접종, 죽은 종계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사항 등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시험소장은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검사대상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인증표시를 회수하거나 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농림부, 비리신고 인터넷으로 접수

농림부는 지난 2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af.go.kr)에 본부 및 소속기관, 관련단체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비리 신고코너’를 개설했다.

농림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클릭한 뒤 ‘부정비리 신고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신고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익명 또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입력된 내용이 자동 삭제된다. 대신 제보자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보장한다.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고 싶으면 신고할 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정해 입력해 놓았다가 열람할 때 사용하면 된다.

경제적인 계사 면적과 사육 밀도

계사가 몇 평이다 라고는 정확히 알고 있으나 몇 수를 키워야 가장 경제적이라는 개념은 다소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짧은 기간내에 빠른 성장으로 출하할 때는 사육밀도가 더욱 중요시된다.

■계사의 가용 면적

특히 계사 면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닭이 활용하는 가용면적으로 따져야 하며 사료보관실과 급이기 및 급수기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은 닭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1.5~1.6kg의 체중을 기준으로 평당 40수가 적당하다.

■계절에 따른 사육 밀도

이 기준에 따르면 1천수 당 25평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오나, 출하 지연으로 체중이 1.6kg을 상회한다든지, 계절적으로 여름철에는 평당 36수 이상 사육해서는 안되므로 실제로 1천수 용으로 전천후 계사라면 최소한 30평은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육계계사는 단열

이 잘 안되어 외부온도의 변화에 민감함으로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철에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단열 능력의 결함을 자체로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육밀도로 해결해야 한다. 좀 더 적은 수의 닭을 키우는 방법이 좋다.

■사육 밀도와 성장률

물론 같은 크기의 주어진 면적에서라면 계절에 따라 사육수수를 조정해도 될 것이다.

추운 계절에는 평당 45수까지 기를 수 있으므로 기존의 1백50평 계사라면 봄, 가을에는 6천수, 여름 혹서기에는 5천4백수, 겨울 추울 때는 6천7백수를 사육해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마리수 조정은 병아리 주문 단위 이상의 복잡성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고 년간 같은 수의 닭을 계속 기른다면 여름 혹서기에 성장이 10~20% 지연될 것이며 이외에도 바닥의 깔짚 문제, 질병 발생 우려 및 식우성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출하지연, 체중 미달 및 사료효율의 부진 등으로 막대

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 손실은 계사를 넓게 사용함으로써 오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사육밀도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은 육추할 때 병아리의 보온에만 신경을 써 같은 계사에서 한구석에 몰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저온보다 더 큰 밀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일반적으로 밀사문제가 거론되면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마리수를 많이 하나 중간에 한번 추려내면 사육밀도가 저절로 조정된다고 한다.

일견하여 보면 그럴듯한 생각인 것 같으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사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그 이유는 대개의 경우 미리 뽑아 파는 닭이 성장이 빠른, 잘 자라는 숫놈이기 때문이다. 숫놈은 성장속도가 암놈에 배하여 약 20% 빠르며 사료효율도 우수하다.

따라서 잘 자라고 있는 숫놈을 미리 뽑아 팔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들만 남아 있게 되고 수익의 잠재력이 큰 놈을 초기에 없애버려 수익의 이중적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USDA, 육류에 대한 방사선조사규칙안 발표

- 병원균 방지에 효과적, 비용·품질·표시 등 문제 남아 -

USDA는 지난 2월 24일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내용으로 한 육류 검사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FDA가 97년 12월 육류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인가한 이래 14개월만에 구체적인 안이 발표된 것이다. 방사선 조사는 현재 생고기 중의 0-157균을 사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알려지고 있으며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및 캄필로박터 등의 병원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규칙 안에 의하면 방사선 조사 육류로서 판매가 인정된 것은 냉장 또는 냉동된 것으로 조리되지 않은 육류, 내장 및 다짐육 등의 육류제품이다. 방사선이 조사된 육류는 방사선이 취급되었다는 국제표준 표시 및 조사된 취지

의 표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가금류의 방사선 조사는 92년에 인가되었지만 이번 규칙 안의 제시와 더불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포장된 것에 한해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 대상을 정육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사선 조사 가금류는 병원균 등의 일부 수요에 한정되어 있고 그 생산량도 대단히 한정적이다.

규칙 안에 의하면 방사선 조사된 육류는 소시지 등의 가공품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방사선조사가 실시될 때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방식)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칙 안에 대한 의견을 60일 동안 모니터링할 계획이지만 방사선 조사 육류가 실제로 유통될 때까지는 비용, 품질, 표시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농림부, 99년 축산발전기금 운용 계획

- 축산정책, 생산중심에서 소비자 지향 · 유통중심으로 -

농림부는 향후 축산사업의 대대적인 방향전환을 예고하는 99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축산물유통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예산지원은 획기적으로 74%나 확대한 반면 생산능력 확충부문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축산정책의 기조가 생산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 지향 · 유통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운영비 감축, 등급판정소, 종축개량협회 등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조직별 자립화계획의 강력 추진, 소전산화사업과 같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축소 또는 보류 등 철저한 긴축운용이 새로 마련된 축산발전기금 운용방향의 특징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육기반확충사업에 98년 1천2백63억원이 투입됐으나 8백58억원으로 32%나 줄었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

은 98년과 같이 4백억원이 유지되는데,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은 용자로 전환(용자 70%, 자담 30%)된다. 축산단지조성은 계속사업을 완공위주로 지원하는데, 올해에는 한우 4, 돼지 9, 닭 5개소 등 18개소에 2백48억원, 가축계열화사업은 8개소로 축소지원하고 지원금액도 1백87억원으로 줄었다.

축산물유통개선사업에는 총 1천3백9억원이 배정돼 98년 7백54억원 대비 74%가 늘었다. 종합처리장 4개소에 2백6억원, 축산물공판장 2개소에 77억원, 도축장 · 도계장 등 위생시설 지원에 6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한 가공 · 판매시설지원이 98년 3백45억원에서 8백54억원으로 1백47%나 늘었다. 공판장 · 도축장의 부분육 가공시설지원이 신규로 10개소에 49억원이 지원되고, 축협외 식육이동판매차량구입에도 신규 6대에 3억원이

지원된다.

가축개량 및 안전성 강화사업에는 1천8백88억원에서 1천2백18억원으로 35%나 줄었다. 가공 · 수출업체 운영자금이 1천4백50억원에서 3백80억원으로 74%나 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양축농가 경영능력 향상보조사업은 6백17억원에서 5백85억원으로 5%가 줄었다.

사료 및 축산기자재 육성에는 6백18억원이 배정돼 12%가 줄었는데, 사료검정 및 사료제조시설 지원에 68%가 늘어난 1백29억원, 사료원료 수입자금으로 4백80억원이 지원된다.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은 98년 2천4백41억원에서 99년 2천97억원으로 14%가 줄었다. 쇠고기 MMA 물량 수입자금으로 1천6백45억원, 유제품 수급 조절을 위한 비축자금으로 2백50억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으로 1백3억원이 투입된다.

99년 EU 가금산업 전망 불투명

올해 독일의 브로일러와 칠면조 생산은 지난해 증가세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EU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네덜란드의 닭고기 시장 전망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육계산업의 위축은 그 동안의 과잉생산을 고려할 때 적절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육계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이면에는 돼지고기의 공급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와 러시아 시장에 대한 급격한 수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다른 EU국가들에서도 네덜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콕, 양계 · 양돈 · 자재박람회 개최

제4회 방콕 양계 · 양돈 · 자재박람회(VIV ASIA 99)가 오는 3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태국 방콕의 퀸시리키트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화란의 우트레흐트 양계 양돈박람회 주관사인 로얄더치 야보스(Royal Dutch Dutch Jaarbeurs)사와 태국의 NCC M&D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데 약 3백여개의 업체에서 출품한 양계 · 양돈 · 양어관련 사육기구, 부화, 육종, 가공, 약품, 운송 및 수의제품들이 전시되며 기간중 양계 · 양돈사료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된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규모가 큰 전시회와는 달리 아시아 실정에 맞는 제

품들이 집중 전시됨으로써 그 동안 국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가축방역사업예산 2백41억여원으로

농림부가 제시한 시 · 도 가축위생관계관 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비 1백43억3천7백82만원, 지방비 49억2천8백87만8천원, 기금 48억4천9백만원 등 모두 2백41억8백69만8천원이 가축방역사업분야에 배정됐다.

주요사업별로는 도태,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비 29억원을 비롯해 예방주사 접종사업 79억5천8백62만9천원, 가축혈청검사사업 2억6천99만원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배정했다.

미, 러시아에 닭고기 5만톤 추가 원조 발표

- 국내 업계 어려운 상황에 따라 원조 제안 -

릭만 미농무성(USDA) 장관은, 지난 2월 3일 작년 12월말에 합의했던 러시아에 대한 약 3백만 톤의 식량 원조에 이어 닭고기 5만 톤 및 종자 1만5천 톤(옥수수 1만3천 톤 포함)의 러시아 추가 원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러시아는 자국의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 옥수수 및 야채 종자의 원조를 요청하면서 닭고기에 관하여는 원조 희망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산 닭고기의 최대의 수출 상대국 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수출량

이 작년 9월 이후 대폭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육계업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어 USDA측이 5만 톤의 닭고기 원조 수출을 제안하였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이것을 받아들인 형태가 됐다.

이에 따라, 3천만 달러 상당의 닭고기 5만 톤이 정부가 보증하는 저리용자 수출프로그램에 의해 수출된다. 원조 수출된 닭고기는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고, 그 수익은 러시아 연금 기금에 배분되게 된다.

한편 USDA가 작년 12월말에 러시아와 합의했던 3백만 톤의 식량 원

조에 대하여는 이번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2월부터 밀 1백50만 톤의 무상원조 외에, 정부보증 저리용자 수출프로그램에 근거하는 농축산물 1백50만 톤의 식량 원조에 관련되는 수출이 되고 있다.

한편 일련의 상황에 대해 폴란드는, 러시아의 폴란드산 축산물의 수입 감소에 따라, 국내 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미국, EU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식량 원조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99년 세계 육류시장 전망

- 타육류는 늘고 닭고기 다소 감소할 전망 -

99년 세계 육류생산 및 공급은 98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리라고 전망된다.

이는 주로 낮은 사료가격으로 인해 채산성이 있는 돈육류 부문의 생산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생산국에서 생산 및 공급량을 줄이는 추세에 있는 쇠고기의 생산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침체될 전망이다.

따라서, 99년 국제 육류무역 전망은 상당히 불확실한 요인이 존재하여 다소 유동적인데, 쇠고기의 경우, 남아메리카에서 쇠고기의 생산·공급량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쇠고기 생산국이 있는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생산, 공급량이 작년보다도 충분하지 않아 전체적인 육류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교역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가금육의 경우는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 연방의 수요전망이 어두워,

생산·공급량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그 교역규모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돈육은 대규모 수입국인 일본의 수입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브라질, 캐나다, EC 그리고 미국 등지의 생산·공급량 마저 증가하는 추세여서 세계무역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FOOD OUTLOOK)

일본, 닭고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

지난해 일본의 닭고기 수입량(1월~11월)을 보면 전체 수입량 45만4천톤 중 약40%에 해당하는 18만 4천톤이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일본은 중국외에 태국, 미국, 브라질 등에서 주로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에 이어 태국에서는 10만9천톤으로 24%, 미국에서는 9만2천4백톤으로 20%, 브라질에서는 6만5천3백톤으로 14%를 차지했고 그의 국가에서 소량 수입되었다. 특히 냉장육의 경우 중국에서 1만1천7백87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중 2.6%를 차지하

였다.

전체 수입된 냉동 닭고기 물량중 닭다리는 6만5천3백톤으로 14%정도를 차지했으며 통닭도 4천2백톤이 수입되었는데 80%이상이 브라질에서 수입된 것이다.

전년동기 대비한 증감은 거의 없었으나 국가별로는 중국이 2.2%, 브라질은 27.2% 감소한 반면 태국은 36.3%, 미국은 1%가 각각 증가하였다.

화인 나원주대표, 오리협회장에

지난 2월 23일 본회 화인코리아 나원주대표가 오리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동안 나주에서 삼계탕과 오리고기 전문생산 업체인 화인코리아를 경영하면서 수출에 크게 일조하였으며, 현재 본회 감사를 맡고 있는 나원주대표는 "늘 오리협회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내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닭고기 부분육 소비 비율 높아져

- 부분육 비율 10.2%, 통닭은 낮아져 -

지난 98년 계열업체에서 생산한 닭고기 물량중 부분육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생산한 총 2억여수 중에서 부분육은 2천만수 정도로 전체의 10%정도가 부분육으로 작업되었으며 통닭은 1억4천여수로 68.7%를 차지하였다. 그외에 가공품은 6.3%, 삼계

는 14.8%를 각각 차지하였다. 부분육은 지난 97년 5.6%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통닭은 77.4%에 비해 10%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소비자의 소비경향이 통닭위주에서 필요한 부위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육으로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통닭보다는

부분육의 소비가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통경로를 보면 통닭의 경우 대리점으로 59.3%, 체인점으로 29%, 가공원료로 9.2%, 기타 식자재용으로 2.5%가 각각 유통되어 대부분 대리점, 체인점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육은 대리점으로 35%, 체인점으로 20%, 가공원료로 36%, 기타 9%로 유통되었으며 가공품은 대리점이 17.6%, 체인점이 70.1%, 가공원료로 4.4%, 기타 8%로 각각 유통되었다.

닭고기 가공품 올해 47% 성장 목표

- 회원 3사 가공품 비중 높여...제품개발 한창 -

현재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는 본회의 하림, 마니커, 해표푸드서비스 등 3사는 올해 매출을 지난해 보다 47%정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3사는 지난 97년 3백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는 4백51억원으로 추정, 전년대비 20.1% 성장을 이루었고 금년에는 전년대비 47.3% 성장한 8백51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전체 닭고기 시장에서의 생산량은 줄어든데 반해 가공품의 생산소비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육계계열화 업체별 가공 제품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하림의 경우 국내 1일 총 소비량 100만수의 25%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프라이징 제품인 튀김류, 그릴을 사용해 붙어 구운 형태를 한 직화제품류, 닭도리탕·백숙·삼계탕 등의 한식제품류 등의 냉동제품을 비롯하여 참나무 숲을 이용하여 향과 방부효과를 낸 훈연제품류, 햄·쏘세지류 등의 냉장제품 등 50여가지가 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체 판매액의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마니커는 현재 20여가지가 넘는 냉장·냉동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 7% 수준인 가공품 비중을 금년에는 12.5%로 늘릴 계획에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현재 두 군데에 있는 육가공 공장을 통합, 중부권에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생산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을 마련하는 등 계속해서 육가공 사업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표푸드서비스는 튀김류를 비롯한 갖가지 냉동제품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가공품 비중을 전체 매출액의 28%까지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각 업계에서는 제품 및 품종의 다변화를 갖춘 신

제품 개발은 물론 판매망 확대에도 최대의 중점을 두고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 가공제품은 LG·롯데·현대 등의 대형 백화점이나 김스클럽·까르푸·E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만 취급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화를 시켜 진열하기에는 판매 이익보다는 물류상의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반품회수 등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회 이전에 따른 회원사 협찬

본회가 지난 1월29일 분당으로 이전하면서 회원사에서 본회 사무실 집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찬하였다.

- 하림(사무실 파티션), 마니커(금고),
- 한일농원(진열장), 우인산업(냉장고),
- 화인코리아(사무용 의자), 민지미디어(전기난로),
- 해표(화환), 체리부로·해마로·한강(금일봉)

본회 회원사 홍보비 협찬

특별회비(소비촉진 홍보비)에 회원사에서 다음과 같이 협찬하였다. 본 홍보비는 회원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병아리, 사료, 비닐, 박스, 약품 등 기타 재료)에서 거래액의 일정금액을 협찬하는 것이다.

(99. 3. 6 현재)

회 원 사	금 액
하 림	1,067,500원